

# 전북미술 협력 성과 '기꺼운 공유'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 서울분관서 개막

전북도립미술관은 26일 2026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 '기꺼운 공유'를 서울분관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소장품을 기반으로 도내 시·군 공립미술관과 협력하는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도립미술관과 시·군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사들이 매월 연석회의로 모여 전북미술의 현황과 각 미술관의 역할, 협력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기관 간 협력의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논의는 2024년부터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로 구체화되었다. 그간의 협력전시는 주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을 지역 미술관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장품 운영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대에 의미를 두었다.

이번 전시는 그 흐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전환점이다. 기존의 도립미술관 소장품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각 시·군 공립미술관이 소장한 대표 작품을 함께 소개하는 첫 전시로, 전북미술의 성과를 기관 간 '공유'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서울분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모인 작품들은 개별 기관의 소장 성과를 나열하기보다, 전북미술이 축적해 온 흐름과 결을 함께 바라보도록 기획되었다.

각 미술관이 '기꺼이' 내어놓은 소장품은 소유의 경계를 넘어 전북미술이라는 공동의 자산으로 다시 연결된다. 이는 협력의 선언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소장품 공유라는 구체



전북도립미술관은 26일 2026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 '기꺼운 공유'를 서울분관에서 개막했다.

적인 실천으로 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시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1층에서는 한국화를 중심으로 지역 미술이 이어온 전통과 사유의 깊이를 살펴보고, 2층에서는 서양화를 통해 시대와 호흡하며 확장돼 온 조형적 감각과 표현의 변화를 조명한다. 서로 다른 장르와 매체는 위계 없이 배치되어, 전북미술이 단일한 양식이 아닌 다층적인 흐름으로 공존해 왔음을 드러낸다.

전북도립미술관 이애선 관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거점미술관으로서 전북도립미술관이 시·군 공립미술관과 함께 만들어 온 협력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며, "각 미술관의 소장품을 서울분관에서 함께 소개함으로써 전북미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다 넓은 관

람객과 공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6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 '기꺼운 공유'는 3월 8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에서 개최되며, 이후 도내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의 일정은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3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김제벽천미술관 4월 1일부터 5월 31일 △무주최북미술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읍시립미술관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주최북미술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주시립미술관(팔복예술공장)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순창군립미술관 옥천골분관은 8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섬진강분관은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이만호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31)

## 속이고 있습니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그 뒤로 강남준이 군복을 입고 자신 명희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바로 강용대 중대가 황전을 급습했다. 명희는 현기증이 일어 머리를 감쌌다. 박창수의 말이 맞는 걸까.

이날 저녁, 유격대 대원 모두가 모인 가운데 부중대장이 이념학을 진행했고, 이어서 자야비판 시간이 되었다.

부중대장은 미리 준비한 건지 남준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도대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느냐였다. 남준은 큰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고, 부중대장은 학도대에서 활동한 것이 강남준 동무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물었다.

남준은 통렬하게 그 당시를 반성하고 있으며 그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신랄하게 자신을 비판했다.

남준의 자야비판을 고무적으로 느꼈는지 대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거나 씩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때였다. 박창수가 발떡 일어섰다.

"강남준 동무는 지금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부중대장을 비롯한 다른 모든 대원들의 눈이 훌쩍 커져서 박창수와 남준을 번갈아 쳐다봤다.

남준은 바로 우리 황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저자가 강용대 반동분자에게 우리가 봉림의 반동분자들을 숙청했다는 사실을 말할 해서 강용대 그 반동분자가 우리 황전 박살들을 참혹하게 학살하도록 했던 말입니다!"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정말 사실이냐? 이런 말들이 대원들 입에서 튀어나왔다.

남준은 맹우취가 기성을 부리는 한 겨울, 눈이 다 벗겨진 알몸으로 등성등성 얼어버린 후수에 풍덩 던져진 꼴이 되었다. 온몸이 급속 냉동되었다.

남짓 그대로 박창수의 언동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준은 강용대 중대장을 발견하자마자 봉림의 참사를 말했다.

그건 강용대가 봉림의 아픔을 되갚아주기를 바라는 단순한 마음이었다. 남준은 복수를 하고 싶었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강용대에게 말했을 뿐이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박창수는, 남준이 강용대에게 봉림의 참사를 알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남준은 공개된 장소에서 강용대에게 마을의 참사를 말한 게 아니었다. 강용대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 그 사실을 알렸다.

강용대가 다른 경찰이나 학도대 대원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그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갈 리 없다. 남준의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회전하고 있다면 즉시 이런 의문을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준은 맹렬한 한파의 겨울 호수에 알몸으로 던져진 상태다. 광광 얼어버린 전두엽이 정상으로 작동할 리 없다.

박창수 동무의 언동이 정말 사실이냐? 부중대장과 대원들 모두가 말 없는 말로 남준에게 묻고 있었다.

입도 역시 냉동된 상태라 남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몸과 함께 정신마저도 얼어버렸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다만 하나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박명희였다.

명희는 화가 난 건지, 분노가 차오른 건지 아니면 측은하다는 건지 표정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남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확실한 건 명희가 평소 남준을 바라보면 그런 눈빛은 아니라는 거였다.

짧은 시간 동안 남준은 단 하나의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었다.

"담! 타다다 담!"

산 너머에서 총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다. 다음 순간 경계근무를 하던 대원이 소리쳤다.

"국방군놈들이다!"

"전원 전투준비!"

중대장이 일어서서 외쳤고, 대원들은 각자의 총기를 들고 삼시간에 흠뻑 젖었다.

남준도 박대우의 소대로 복귀해서 모신나강 소총을 거머쥐고 미리 지시받았던 대로 움직였다.

군경에게 아지트가 발각되면 다른 아지트도 이동해야 한다. 각 소대 단위로 산개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다.

## '정읍 달맞이 문화제' 홍보 분주

정읍문화원, '전통놀이 전국대회' 참가자 선착순 접수

정읍문화원이 오는 3월 2일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정읍 달맞이 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메인 행사인 전통놀이 전국대회에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읍! 말 달리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점차 잊혀가는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잇고 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축제의 핵심인 '전통놀이 전국대회'에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막바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회는 3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행사장 내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다. 경기는 팀 대항전인 윷놀이와 개인전인 제기차기, 투호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현재 문화원은 투호와 제기차기 종목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

다.

본행사가 열리는 당일에는 흥겨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땅의 신을 달래는 지신밟기와 보름굿, 강강술래 등이 차례로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이어 축제의 백미인 달집태우기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으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 공간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떡국과 오곡밥, 부럼, 생화차 등 보름날 챙겨 먹는 전통 음식 부스가 방문객의 입맛을 돋운다. 또한 한 해의 운수를 점쳐보는 토정비결과 서양 운세 카드인 타로를 비롯해 소원지 쓰기, 떡메치기, 연날리기, 빛을 내는 LED 쥐불놀이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체험 프로그램이 설 새 없이 펼쳐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립합창단, 월간 상설공연 성료

정읍시립합창단이 지난 25일 연지아트홀에서 대중적인 K팝과 가곡을 엮은 2026년 첫 월간 상설공연을 전석 무료로 개최해, 70분간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번 무대는 '사계를 품은 K팝과 한국 가곡(K-art song)'을 주제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시립합창단은 대중에게 친숙한 가요를 풍성한 화성과 세련된 편곡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느낌의 무대를 선보였으며, 깊이 있는 울림이 돋보이는 한국 가곡을 더해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39명의 정읍시립합창단 단원, 드림연주자, 사회자 등 총 41명이 무대에 올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과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